

지역 소식 통

제3회 부안붉은노을
동요제' 참가자 모집

부안군대표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중문)가 제3회 부안붉은노을동요제 참가자를 모집한다. 국내·외 초·중·고생이면 참가 가능한 부안붉은노을동요제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열리는 2025 부안붉은노을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해변에서 열리는 유일한 전국 규모의 어린이 동요제다. 상금 규모는 총1,640만원으로, 올해는 특히 1위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붉은노을대상' 상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어 참가자들의 관심을 더욱 끌 것으로 기대된다. 경연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선 1차인 동영상 심사를 통해 선발된 25팀이 축제 둘째 날인 10월 25일(토)에 예선 2차 무대에 오르게 되며, 여기서 선발된 15팀이 축제 마지막날인 10월 28일(일)에 결선 무대를 갖게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치매안심가맹점
12곳 신규 지정 현판 전달

정읍시가 치매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2곳의 치매안심가맹점을 새로 지정하고 지난 달 14일부터 이달 5일까지 현판 전달식을 마쳤다. 치매안심가맹점은 치매환자가 길을 잃거나 실종될 경우 임시 보호와 경찰 신고(☎112)를 지원하고, 치매지원봉사활동과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 치매안정망 구축에 동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에 지정된 가맹점은 호밀호두, 명성장식, 대동사치 문백화점, 외플대학 정읍점, 카페오롯, 로또복권, 영물베이커리, 분가, 민들레뜨락, 남매안경원 상동점, 메가랜드씨커피 신대인점, 개인택시 등 총 12곳이다. 이로써 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49개소의 치매안심가맹점을 관리하게 됐다. 가맹점은 편의점, 카페, 미용실 등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들은 치매피터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대응역량을 키우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세계유산도시 고창에서 즐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기자간담회 열고 도민체전 등 가을축제 준비상황 설명

심덕섭 고창군수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을시즌 다양한 축제와 행사들의 성공적인 개최로 도시 활력도를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전날(8일) 오후 심덕섭 고창군수는 석정웰파르트호텔에서 ‘세계유산도시 고창에서 즐기자’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심 군수와 각 부서 과장들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체전과 장애인체전’을 비롯해 ‘2025세계유산축전’, ‘제62회 모양상제’ 준비상황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심덕섭 군수는 “이번주 도민체전을 시작으로 장애인체전, 세계유산축전, 모양상제까지 올 가을 고창군이 축제와 행사로 들쭉인다”며 “전북도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이 고창에서 머물면서 고창군 이미지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심 군수는 최근 지역 내에서 번지고 있는 유언비어에 대해 단호한 대처 의지를 밝혔다. 고창종합체육관에 대해선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불거진 통일교 논란과 (췌)모나용평투자와 운영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관련 인·허가와 관리 과정에서 생



계 영향 주민 의견, 지역 발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심덕섭 고창군수는 “오는 22일부터 고창군민활력지원금과 정부의 2차 소비쿠폰으로 군민 1인당 30만원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도내 최초 낚시인 안전관리 지침 제정 시행

군, 부안해양경찰서와 세부 사항 긴밀히 협의

부안군은 갯바위 등 바닷가와 방파제 등 항포구를 방문하여 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실족에 따른 추락과 만조시 고립 등 각종 안전사고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낚시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도내에서는 최초로 낚시인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8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마련된 지침에는 낚시인은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수면의 여건이

낚시를 하기에 부적합 경우에는 낚시를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낚시인의 안전 확보와 사고방지를 위해 간출암과 무인도, 어항구역내, 공유수면내 인공구조물, 기상특보 발효시 해안가 등은 출입을 금지하며 기상 상태와 수면의 상황, 조석 시간 등을 확인하는 등 낚시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정하고 구명조끼 미착용이나 주류 반입, 음주, 다른 낚시인의 낚시행위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

하는 행위의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 낚시인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번 낚시인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부안해양경찰서와 세부 사항까지 긴밀히 협의했고 행정예고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침의 내용에 반영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낚시인 안전관리 지침의 제정으로 안전한 낚시환경 조성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예초기 특별 점검·정비’ 실시

정읍시 농기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10월 2일까지 무상 점검

정읍시가 추석을 앞두고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예초기 특별 점검과 정비에 나선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9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본소 농기계임대사업소 정비실에서 무상 점검 서비스를 운영한다. 기간 중 농업인이 예초기를 자택에 방문하면 현장 점검과 무상 정비를 받을 수 있으며, 고장이 심한 기계는 관내 전문 수리업체와 연계해 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기계 안전 사용법과 교통안전 예방 교육도 병행해 사고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예초기는 벌초와 논두렁 풀 베기 등에서 활용도가 높지만, 고속 회전 칼날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센터는 안전모,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등 보호 장구 착용과 올바른 작업 방법 준수를 강조했다. 작업

전 주변의 벌, 유리병, 돌 캔 등 위험요소 확인, 무리한 작업 자제, 음주 작업 금지도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으로 안내했다. 또한 예초기를 보유하지 않은 농업인을 위해 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예초기 60대를 분산 배치해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대 희망자는 신분증과 농업인 안전공제 또는 개인실손보험 사본을 제출해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농촌지원과 관계자는 “예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 전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 보호 장구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초기 임대 관련 문의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539-6285~6), 북부(☎539-6292~3), 서남권(☎539-6294), 동부(☎539-6295), 서부(☎539-6298)에서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의회는 제364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4일부터 9일까지 부안읍, 하서면, 줄포·진서면, 변산면 등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부안군의회,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실시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제364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4일부터 9일까지 부안읍, 하서면, 줄포·진서면, 변산면 등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창년특화주택 사업 △하서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석불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철포 배수펌프 보강사업 △변산아동 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사업의 진행 상황과 운영 실태를 살폈다. 특히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 지연과 예산 증가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 추진 초기 단계부터 꼼꼼한 검토와 추진이 필요한 책임 있는 행정을 강조했다. 또한 눈앞에 놓인 부분만 생각에 그치지 말고 미래의 부안 발전을 위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군민 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박병래 의장은 “보고로 접하던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며 사업 실태를 점검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손화중 도소터’ · ‘충현사 편액’ 향토유산 신규 지정

고창군이 지역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고창 손화중 도소터’와 ‘고창 충현사 편액’ 등 2건을 고창군 향토유산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창 손화중 도소터(성송면 과치리)는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손화중이 1893년 10월 도소를 설치했던 장소다. 이듬해 1894년 3월 20일 제1차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린 무장기포를 일일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이 된 장소인 점을 인정받았다. 이번 지정 과정에서는 지역 거주민



들의 구술 전승과 표본조사를 통해 손화중 도소(최부자집 대문채)의 구체적인 위치가 확인되어 역사적 진정성과 학술적 가치가 한층 높아졌다. 도소는 농악을 포교하는 종교적 의

례 및 수행하는 공간이었으며, 차츰 동학농민군의 집회 장소이자 관내 치안과 행정을 수행하는 집장소의 역할로 확대하여 운영한 장소이다. ‘고창 충현사 편액’ (무장면 교흥리 충현사에 위치)은 광해군 1년(1609년)에 임금이 직접 사액(賜額)한 편액이다. ‘조선왕조실록’, ‘미암일기’ 등 당대 문헌에 사액 기록이 명확히 서술되어 있으며, 방사성 탄소 연대분석 결과 역시 문헌 기록과 일치하여 역사적 신뢰성을 입증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